

#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권 영 회	소속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서울시 기획조정실		
질문제목	정책컨설턴트 및 책임운영기관 관련		
<b>&lt;질문내용&gt;</b>			
<b>1. 정책컨설턴트 운영 및 양성과정 운영 실효성</b>			
○ 연간 84명에 달하는 정책컨설턴트가 선정되었는데, 실질적 컨설팅 투입인원은 매년 7명에 그침. 컨설턴트 업무도 ‘통역’업무 위주로, 정책 해외수출 관련 높은 전문성은 요하지 않음.			
○ 지난5년간 컨설턴트 선발 누적인원은 366명이나, 컨설턴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컨설턴트들이 수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보임.			
○ 매년 정책수출 및 민간기업 수주사업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들을 매년 80명 이상 운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연간 컨설팅에 투입되는 컨설턴트가 6명 정도에 불과하는데, 나머지 70여명의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 컨설턴트 양성과정 기획 이유와, 기존 컨설턴트 활용 보다 신규로 선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정책컨설턴트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컨설턴트 양성교육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2.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
- 그간 책임운영기관 운영 개선 계획과 추진 실적
-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실시 등 인사·조직·예산 분야의 자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방안과 향후 추진일정

**1. 정책컨설턴트 운영 및 양성과정 운영 실효성**

- 연간 84명에 달하는 정책컨설턴트가 선정되었는데, 실질적 컨설팅 투입인원은 매년 7명에 그침. 컨설턴트 업무도 ‘통역’ 업무 위주로, 정책 해외수출 관련 높은 전문성은 요하지 않음.
- 지난 5년간 컨설턴트 선발 누적인원은 366명이나, 컨설턴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컨설턴트들이 수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보임.
- 매년 정책수출 및 민간기업 수주사업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들을 매년 80명 이상 운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연간 컨설팅에 투입되는 컨설턴트가 6명 정도에 불과한데, 나머지 70여 명의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 컨설턴트 양성과정 기획 이유와, 기존 컨설턴트 활용보다 신규로 선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정책컨설턴트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컨설턴트 양성교육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컨설턴트 운영 및 양성과정 운영 실효성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성 자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근
	☎ 2133-5266	주무관	권 선 애
작성일 : 2020. 12.			

## 1. 서울정책컨설팅단 구성

- 서울정책컨설팅단은 '16년부터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 압축 도시성장 경험 공유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해외 도시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우수정책분야별(도시계획, 교통, 전자정부 등) 서울 시정 전문가(교수, 연구원, 전·현직 공무원 등)로 구성된 인력풀 임.
- 컨설팅트 수는 매년 새로 선정한 누적 인원이 아니라 '16년 旣선정된 인력풀에 전문가를 추가하여 연도별 인원이 조금씩 증가한 것이며, '20 3월에 실질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소 정비하여 현재 29명의 정책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음
  - ※ 16년(80명), '17년(83명), '18년(84명), '19년(89명), '20년(29명)

## 2.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역할)

- 정책컨설팅단은 운영지침에 따라 해외도시에 파견되어 정책컨설팅트 업무를 수행함
  - 필요시 정책컨설팅단 인력풀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 파견
  - 시 우수 정책 발표, 현지 자문, 해외사업 수요 조사 등의 활동 수행
- 현재까지 총 23회 30명이 파견되어 다양한 지역·분야의 해외사업 발굴·기획에 기여함.
  - '16년 5건(8명) 호치민 정책공유워크샵참가 도시철도 정책발표 및 사업제안 등
  - '17년 7건(9명) 우즈베키스탄 정책공유 포럼참가 서울시 교통정책 발표 등
  - '18년 7건(7명) 우간다 캄팔라 전자정부구축 착수보고 참석 및 자문실시 등
  - '19년 4건(6명) 행정안전부 공공행정포럼 참석 미얀마 등 서울 교통정책 발표
  -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파견이 없었음

### 3. 서울정책컨설턴트 양성과정 기획 이유

- 정책컨설턴트 양성과정을 기획, 신규 컨설턴트를 양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기존 정책컨설팅단 중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는 해외사업 참여가 어렵고,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에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을 **선호**하나 ODA 재원 활용 등 해외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상대도시에 적절한 컨설팅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이에, 해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 인력의 안정적 풀 확보를 위해 **'19년·'20년에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 기업 관계자 대상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 함.
  - ※ '19년 수료자 17명중 13명이 대학원 추천 및 정책컨설턴트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20년 정책컨설팅단에 신규 위촉됨

#### ※ '서울정책컨설턴트 양성과정'

- '19년 2주 과정(9.23~27, 10.14~18), 22명 신청 17명 수료(13명 정책컨설팅단 위촉)
- '20년 3주 과정(11.2 ~11.20), 18명 신청, 14명 수료
- 내용 : 교통·환경·스마트도시 등 시 우수정책 이해, 해외사업 이해, ODA 재원 활용, 해외공무원 컨설팅 실습 등
- 예산 : 대외협력기금( '19년 65백만원, '20년 59백만원)

### 4.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 개선 방안

- 실질적으로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위촉된 정책컨설턴트의 해외 파견이 없었고, **'21년 '서울정책컨설턴트 양성과정' 사업은 대외협력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또한, 정책컨설팅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외파견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강사활용, 민간기업대상 시 정책 컨설팅 등 **국내에서도 활동가능 하도록 운영규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2.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

나. 그간 책임운영기관 운영 개선 계획과 추진 실적

다.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실시 등 인사·조직·예산 분야의 자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방안과 향후 추진일정

### 가.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

- '08년 6월 「조직·인사쇄신계획」에 따라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조직구축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음(조례 제정, '08.11.)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최초 지정('08.12.)하였고,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추진 경위>

- '08. 6월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확정(조직·인사쇄신계획, 시장방침 제295호)
- '08.11월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08.12월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임운영기관 지정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교통방송
- '10. 6월, '13.10월, '16. 8월 :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계획 수립
- '20. 2월 : 서울교통방송 지정해제 ※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

## 나. 그간 책임운영기관 운영 개선 계획과 추진 실적

- 제도 도입 이후,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계획」 등 3차례 수립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구 분	개선 내역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계획 ('10.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5급 이하 하부조직 설치 및 업무분장 사항을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기관별 직제규정으로 정함</li> <li>• (인사) 4급 일반직 기관내 부서(간) 전보 실시</li> <li>• (예산) 실·국·본부와 별개로 배분액(Ceiling) 산정·확정하고, 배분액 범위내에서 기관장 책임하에 예산편성</li> </ul>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계획 ('13.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기관별 직제규정 변경 시, 市 승인권 폐지, 직급별 총정원 내 직종(일반직, 연구직 등) 조정의 자율성 부여</li> <li>• (인사) 4급 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부여 시, 책임운영기관간 통합조정 실시 ※ 기존 : 개별평정 ⇒ 변경 : 개별평정 후, 책임운영기관 3개 평점점수를 통합하여 등급 조정</li> <li>• (예산) 예산전용 시, 예산부서의 예산 전용 심사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여부만 판단)</li> <li>• (평가) 종합평가 결과, 등급평가제 적용 ※ 기존 :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 ⇒ 변경 : 전체 점수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li> </ul>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계획 ('1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별도 평가체계·성과보상제도를 폐지하고, 市 성과관리체계(3급이상 사업소 평가그룹)로 편입</li> </ul>

다.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실시 등 인사·조직·예산 분야의 자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방안과 향후 추진일정

□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 운영수지, 운영에 필요한 여건 등 현재 지정된 기관들이 책임운영기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현재 도입된 제도 전반에 대해서 효과성과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 향후 추진일정

- 책임운영기관(서울역사박물관·미술관) 운영체계 검토·마련 : '21년 상반기

작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허혜경
	☎ 2133-6724	주무관	이승혜
작성일 : 2020. 12. 9.			